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7.26~2015.8.0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신심명(몰록깨달음의노래)	혜국스님	모과나무
2	무아윤회문제의연구	호진	불광출판사
3	명추회요-종경록 촬요본	회당조심/원택	장경각
4	행복은달처럼우리곁에있네	월호스님	(주)조계종출판사
5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6	남을위해기도합시다	퇴옹성철	장경각
7	감산자전	담산덕청 대성	탐구사
8	금강경을읽는즐거움(위로와응원이빛나는)	일감스님	민족사
9	꽃잎이떨어져도꽃은지지않네	법정,최인호	여백
10	행복 뇌 접속	릭핸슨/김미옥	담앤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목련존자 이야기 소설화… 교차편집 전개

목련의 기도

백금남 지음 | 참글세상 펴냄 | 1만 3500원

불교서 효(孝)는 부처님의 자비롭고 올바른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기는 최선의 방법이라 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부모님 은혜를 갚고자 등에 업고 수미산을 수백번 돌아 발에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깎여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하셨다. 또한 아비지옥에 떨어진 불효자는 천신도 그를 구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불효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강조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효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경전이 많다. 그중 부모은중경, 효자경, 잡보장경, 말라말경, 육도집경 등이 대표적이다. 부처님께서는 유독 효를 가리켜 백행의 근본이라 했다. 이 말은 불자가 효를 행하면 모든 계품을 일심에 구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불교의 중요한 명절중 하나인 우란분재(백중)도 바로 한 아들의 지극한 효심서 기원한 재이다. 이는 효를 중요시 여긴 부처님 가르침에서 기인한 것이다.

소설가 백금남<사진>은 최근 이 우란분재(盂蘭盆齋)의 기원이 된 목련존자 이야기를 소재로 부처님 가르침과 업보, 인연, 윤회 등 불교와 관련된 주제를 풀어 소설을 썼다. 제목은 〈목련의 기도〉이다. 책은 주인공 '나'가 실종된 어머니를 찾기 위해 일본서 귀국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도쿄에 교환교수로 나와 있는 '나'는 새벽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 잠이 깬다. 전화를 걸어온 조카는 실종된 어머니에 대한 단서가 있다고 말하고, 나는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공항서 어머니를 찾으러 가는 차 안에서 조카는 한 권의 책을 건넨다. 〈목련암〉이라는 제목의 책은 붓다의 제자인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찾아 여섯 지옥을 헤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가 백금남은 군더더기 없이 담담하고 담백한 필치로 전생과 현생, 전설과 현실을 교차하면서 이야기를 끌고 간다. 현실서 시작돼 현실서 끝나지만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의 고갱이는 책 속의 책인 바로 〈목련암〉 이야기에 있다. 구율타, 출가해 목련이 되는 주인공은 어머니가 생전에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 지옥, 그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들이 떨어진다는 무간지옥에 거꾸로 매달려 고통 받고 있음을 알고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지옥으로 떠난다. 도중에 그가 목격하는 8대 지옥의 무시무시한 풍경은 상상을 초월한다. 목련은 안내를 맡은 질로라는 아홉 살 꼬마의 맹랑함에 아연실색하고, 화도 내고, 어처구니없어 하면서도 함께 무시무시한 지옥을 두루 순례한다. 목련과 티격태격하면서 고정관념과 허상의 실체를 하나하나 깨우쳐주는 질로의 대화를 통해 독자들은 대승불교의 가르침에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어허, 극락세계를 마다하고 고해 속으로 들어간다. 도대체 부모가 무엇이기에……. 그대를 인간지옥에 낳은 이들이 바로 부모란 존재라는 것을 잊었는가? 어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곳의 그대들이 알겠소. 내가 그들에게 가는 것은 그들이 바로 나의 우주이기 때문이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장본인들이요, 그러므로 바로 나이기 때문이오."

이 책은 한 번 읽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거듭 읽으면서 삶과 인연에 대해 깊은 사유를 하게 하는 소설이다. 효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요즘,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다, 식의 그릇된 생각이 횡행하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목련의 깊은 효심과 인연의 가없는 깊이를 그린 〈목련의 기도〉는 효란 과연 무엇이며, 나와 부모의 관계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붓다는 무엇을 설파했는지에 대한 깊은 화두를 던져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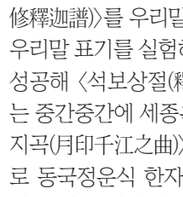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저자 백금남은?

제주도서 출생했다. 1985년 제15회 삼성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본격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장편소설 〈십우도〉와 〈탄트라〉가 잇따라 히트하면서 90년대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중 한 명이 되었다. 2003년에는 〈사자의 서를 쓴 티베트의 영혼 파드마삼바바〉로 민음사 제정 올해의 논픽션상을 수상 했다. 2008년 9월에는 일본의 화신(畵神)으로 불리는 도슈사이 샤라쿠가 바로 한국의 김홍도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추적한 소설 〈샤라쿠 김홍도의 비밀〉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이어 2년여 동안 신윤복과 조선 후기 회화사에 대해 집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한 〈소설 신윤복〉과 신작 〈관상〉을 발표했다.

한글 창제의 일등공신은 佛家의 학승?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글의 발명
정광 지음
김영사 펴냄
1만 9800원

언해본을 〈월인석보〉에 담은 이유
한글 제정 동기는 '발음기호'
기존 한글연구 통념 뒤집어
한글 20C 음운론보다 500년 앞서

한글은 한자음의 발음을 표기하기 위한 발음기호로 만든 것이다. 원나라가 성립하고 이전 중국어와 발음이 전혀 다른 한아언어(漢兒言語)가 대두되면서 중국의 한자음과 우리 한자음이 크게 달라져 소통에 어려움이 따랐다. 그래서 우리 것을 교정해 〈동국정운〉 한자음을 만들었다. 이에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올바른 발음이란 의미로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유신들은 중국 한자음이 정음을 표기하는 문자라는 뜻으로 정음(正音)이라 불렀다. 교착어인 우리 말 쓰임에 고립어인 한자는 어순과 의미 전달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 세종의 둘째 딸인 정의공주가 '변음토착(발음을 바꿔서 토를 달다)'의 난제를 해결하자 세종은 이 문자로 우리말을 기록할 수 있다고 보고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석보상절〉을 짓게 하고 스스로 〈월인천강지곡〉을 지어 이를 확인했다. 이 책에서는 세종이 이 둘을 합편하여 〈월인석보〉를 간행하면서 권두에 훈민정음의 〈언해본〉을 붙여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특별히 강조된 것은 한자를 그대로 읽는 것이다. 아전인수 격이나 자기 멋대로 한자를 해석하지 말고 원래의 뜻대로 읽자는 것이다. 그래야 보다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훈민정음(訓民正音)'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바른 글자"로 해석한다든지 '정음(正音)'을 "올바른 글자"로 보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음(音)'은 발음이지 글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자에 있지도 않은 뜻이나 발음으로 한자를 멋대로 읽는다면 어떻게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

▲누가 만들었는가=한글 창제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불가의 학승들이었다. 훈민정음 〈언해본〉이 불서(佛書)인 〈월인석보〉에 부재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수양대군이나 동궁, 정의공주 등 가족과 세종이 직접 골랐다는 친간팔유(親揀八儒)로 불리는 성삼문, 신숙주 같은 젊은 학자의 도움도 있었지만, 한글 창제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불가의 학승들이었다. 고대 인도의 조음음성학이 팔만대장경에 포함되어 고려와 조선에 유입되면서 불가의 학승들이 음성학을 공부,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한글로 토를 단 이후로는 변음토착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문 본문과의 구별도 확실해져서 이해가 훨씬 쉽게 되었다. 이로부터 세종은 새 문자로 고유어를 표기할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고안한 문자로 우리말 표기에 몰두하였는데 이것은 동궁, 수양, 안평, 정의 등의 자녀들과 함께 작업했다. 또 자녀 가운데 수양대군은 신미(信眉), 김수온(金守溫) 등과 함께 〈증수석가보(增修釋迦譜)〉를 우리말로 언해해 신문자로 우리말 표기를 실험하게 했다. 이 시도가 성공해 〈석보상절(釋譜詳節)〉이 저술되는 중간중간에 세종은 스스로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지으면서 신문자로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표음과 고유어의 표기를 자신이 직접 시험하게 된다. 이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몸소 확인하고 〈해례본〉에 붙인 자신의 서문과 예의(例義)를 우리말로 풀어 자신이 편집한 〈월인석보〉의 구권(舊卷)에 붙여 세상에 알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훈민정음의 〈언해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언제 제정되고 반포되었는가=한글은 이미 만들어졌다가 10여 년에 걸친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세종 25년 12월 기사로 나타난 것이다. 이 책에서는 언해본 〈훈민정음〉이 〈월인석보〉 권두에 부재돼 간행된 것을 진정한 의미의 반포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세종 29년의 간기가 있는 〈월인석보〉의 옥책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한글이 세종 28년 9월 상한에 간행한 소위 〈해례본 훈민정음〉으로 공표된 것으로 보아왔다. 그래서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했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해례본〉은 난삽한 성리학과 성운학의 이론으로 새 문자를 설명한 것이어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책이다. 그래서 〈해례본〉 앞부분의 석장 반을 우리말로 풀이한 훈민정음의 〈언해본〉이 간행된 것을 한글의 공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 〈언해본〉은 천순 3년(1459), 즉 세조 5년에 간행한 〈월인석보〉 권두에 〈세종어제훈민정음〉이란 이름으로 첨부되었기 때문에 모든 연구자들이 이때에 훈민정음의 언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정통 12년, 즉 세종 29년의 간기가 있는 〈월인석보〉의 옥책을 근거로 하여 구권은 세종 생존 시에 간행되었고 여기에 〈훈민정음〉이란 이름의 언해본을 붙여 간행하여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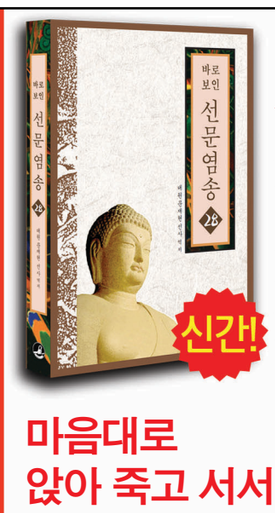
〈월인석보〉는 그동안 학계에 알려진 것처럼 천순(天順) 3년, 세조(世祖) 5년(1459)에 처음 간행된 것이 아니라 세종 생존 시에 간행되었다. 이것은 세조의 어제(御製) 서문서 밝힌 바와 같이 세종이 구권(舊卷)을 간행하였으며 이 책의 권두에 〈언해본〉을 붙여 간행한 것은 전혀 새 문자의 공표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정통(正統) 12년(1447), 즉 세종 29년에 개성 불일사(佛日寺)서 제작한 〈월인석보〉 옥책이 있다.

▲한글이 과학적인 진짜 이유=한글은 서양에서도 20세기가 되어서야 발달한 조음음성학과 구조음운론보다 500년이나 앞서 이 같은 언어학 이론을 동원해 문자를 제정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했으며 각 문자의 음가를 밝혔다. 한글이 과학적인 것은 15세기에 제정된 훈민정음이 조음음성학의 이론에 입각해 음운을 분석하고 문자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20세기에 서양서 발달한 조음음성학은 인간의 언어음(言語音)을 발성기관의 조음(調音) 메커니즘에 의거하여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으로 나누어 구별했는데 세종대왕은 이보다 500여 년이나 앞서서 이러한 음성학의 이론을 동원해 문자를 제정하고 이 문자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각 문자의 음가들을 밝힌 것이다. 음운을 대립적인 구조(構造)로 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구조음운론은 20세기에 서양에서 발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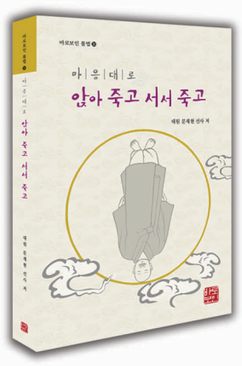
▲한글은 과연 사상 유례없는 문자인가=한글은 그보다 170여 년 전 원나라에서 만든 파스파 문자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티베트 서장문자, 근본적으로 고대 인도 음성학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다. 중국의 북방민족들은 한자로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기가 어려워 일찍부터 스스로 표음문자를 제정하여 자국어를 기록했다. 기원후 650년경에 만든 티베트의 서장문자부터 10세기 거란의 요나라에서 만든 거란문자, 12세기 여진의 금나라에서 만든 여진문자가 그랬다. 13세기에 몽골의 칭기즈 칸은 위구르 문자를 빌려서 몽고어를 기록했고 14세기에 원나라의 세조 쿠빌라이 칸은 한글과 유사한 파스파 문자를 만들어 한자음과 몽고어를 기록하였다. 이 책에서는 한글이 15세기에 이와 같은 북방민족의 전통을 이어 만든 문자라고 주장한다. 파스파 문자의 한자음 표음은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의 한자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즉, 한자음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음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므로 표음문자인 파스파자는 한자의 발음을 표음하는 데 더할 나위가 없는 좋은 발음기호였다. 이 문자가 고려 후기에 널리 애용된 것은 몽고어 표기를 위한 문자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조선에서는 드디어 파스파 문자와 동일한 역할의 훈민정음을 제정하여 한자음 표기에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새 왕조의 통치계급 물갈이에 이용되기도 한 한글=한글 발명 이전에도 동아시아 민족들은 나라를 건국하면 새 문자를 제정하는 전통이 있었다. 새로 만든 문자로 관리 임용 시험을 치러 같은 세력의 인물들을 채용해 통치계급 물갈이를 추진했다. 한글도 마찬가지였다. 공표 2개월 후 이과(吏科)와 취재(取才)에 출제, 인재를 선발하고 고려의 잔재를 척결하는 데 이용하였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1번째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8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8권 출간! 양산, 명초, 법안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신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우리들 모두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기를 자재했던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열반상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큰 용기와 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향기가 될 것이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안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